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경남 거제시
2013. 10. 15(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02)784-4760~2 Fax.02)788-0170
[거제]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1-21번지 명성빌딩 4층 Tel.055)632-7822 Fax.055)638-4553
담당 : 김성훈비서관(010-3851-8656)

전통시장-대형마트 매출 격차 “양극화 심화”

- 전통시장 4곳 매출액, 대형마트 1곳에도 모자라 -
-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정책적으로 지원 필요 -

- 정부의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전통시장 수는 1천283곳, 연 매출액은 21조원으로 집계되었다.
- 전통시장 한 곳당 매출액은 163억원이고 전통시장 점포 수는 18만6천192개로 한 점포당 연 매출액은 1억1,2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대형마트는 472곳으로 매출액은 35조9천억원을 기록했으며 대형마트 한 곳당 매출액은 760억원으로 전통시장 4.7곳과 대형마트 1곳의 매출액이 비슷하다.
- 백화점(93곳)은 한 곳당 매출액이 1천784억원으로 전통시장의 10.9배에 달했다.
- 전통시장 한 곳당 매출액은 2008년 178억원이었으나 3년새 8.4% 감소했고, 2012년에는 149억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최근 5년간 매출액이 각각 39%, 107% 늘어 격차는 더 벌어졌다.
-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점포당 연 매출액도 58억원에 달해 SSM 3곳이면 전통시장 한 곳의 매출액을 능가했고 전통시장 점포 50곳 이상의 매출실적이 SSM 한 점포와 비슷한 수준이다.

- 김한표 의원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해가 갈수록 대형마트·백화점·SSM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또, 김 의원은 “지난 6년간(’ 07-’ 12년) 전통시장 화재발생 399건, 59억원 재산피해를 입었고 전통시장의 경우 가해업소의 배상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다수의 시장 상인들은 막대한 재산 손실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액 비교 현황 〉

(단위 : 조원, 개)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통시장	매출액	22.3	22.0	21.4	21.0	20.1
	시장수	1,247	1,247	1,283	1,283	1,347
	점포수	181,405	181,405	186,192	186,192	194,750
대형마트	매출액	31.9	33.2	31.4	35.9	44.4(E)
	사업체수	424	442	458	472	-
백 화 점	매출액	14.0	15.2	15.9	16.6	29.1(E)
	사업체수	82	83	93	93	-
슈퍼마켓 (SSM)	매출액	24.1 (3.5)	26.8 (4.2)	30.4 (5.0)	33.5 (6.1)	34.0(E) (7.0)
	사업체수	98,134 (485)	95,395 (677)	90,616 (928)	87,654 (1,050)	- (1,280)

* 출처 : 중소기업청 ’ 08~’ 11년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도소매업조사, 시경원 전통시장 실태조사, ’12년 유통업체연감(한국체인스토어협회), 중기청 사업조정팀(SSM)

* ’12년도 대형마트, 백화점, SSM 사업체수는 아직 자료 없음